주간통일정세 2008-45(2008.11.03~11.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5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공연 관람(1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 2곳을 시찰한데 이어 중앙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연일 공개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김 위원장은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새벽 보도, 그러나 통신은 공연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은하수', 만수대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북한에서 정통 음악과 무용을 공연해온 예술단체들이 참가
- 공연 수행에는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리광호 당 중앙위 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현철해.리명수 군대장 등이 함께 관람

○ **김정일, 군부대 사진(1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전 2시쯤 "김 위원장이 인민군 2200부대와 제534구분대를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 2장을 내보냄. 통신은 그러나 지난 2일처럼 이번에도 시찰 시기와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음.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534구분대는 평양 근교에 위치한 군수 부대로 추정된다"며 "북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2001년 9월 이후 이 부대만 10번째 방문했다"고 밝힘. 김대변인은 "사진에 시기(늦가을)를 추정할 수 있는 (단풍 등) 배경이 있고 김 위원장이 계절적으로도 맞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올해 찍은 사진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변
-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맨 앞줄 가운데에 서 있고 150여명의 군인들이 옆과 뒤로 도열해 있다. 왼쪽 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은 사진 속에서 '차려 자세'로 왼팔과 오른팔을 모두 늘어뜨리고 있음. 차려 자세지만 왼손은 주먹을 쥐지 않았고 오른손은 약간 뒤로 감춰져 있고, 오른쪽 입 꼬리도 왼쪽보다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임. 정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오른쪽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것 같다"며 왼쪽이 불편한 것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에 주목
- 조선중앙TV도 5일 오후 김 위원장이 두 부대를 찾아 훈련을 참관하는 사진 14장을 포함해 총 28장의 사진을 내보냄. 특히 중앙TV가

내보낸 14장의 김 위원장 사진에는 그가 뒷짐을 지고 훈련을 참관하거나 걸어가며 오른팔을 치켜들거나 오른팔을 어깨 약간 위로 쳐든 채 군간부들에게 얘기하는 모습, 각각 남녀 군인과 얘기하는 장면, 특히 잔디밭 위에서 오른손 손바닥을 들어 아래에서 받치 듯 든 왼손 손바닥을 치는 박수 모습이 포함돼 있음.

- 김 위원장은 회색 파카에 옅은 갈색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굽이 높은 구두 대신 밑바닥이 편평한 구두를 신었고 수행 간부들과 부대 지휘관들은 군복을 입었으나 김 위원장만 건강을 감안한 듯 요즘 날씨에 비해 두툼해 보이는 파카 차림이었음.

○ 김정일 치료설 佛외과의사, 평양 방문 시인(11/5, 후지 TV)

-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뇌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 루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평양을 방문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5일 보도
- 후지 TV의 보도에 따르면 루 박사는 10월 24일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CA121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이를 포착한 취재진이 "평양에 가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를 시인, 그러나 루 박사는 평양행의 목적이 김 위원장의 치료를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남.

○ 北, 김정일 축구관전 해외보도 대내홍보(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축구팀간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동정을 다룬 해외언론의 보도를 주민들에게 홍보
- 방송은 중국의 신화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영도자께서 축구경기를 관람하셨다"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동정을 취급한 것을 비롯해 홍콩 대공보, 러시아의 이타르타스와 에코모스크비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미국의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NHK방송이 보도했다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두 선언 이행" 거듭 주장(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북남 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정책화"하고 있다며 두 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
-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떠들면서 '실용'의 간판 밑에 북남대결을 정책화"하고 두 선언의 "이행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북남관계는 갈수록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

北, '백두산 혁명전적지' 동계 답사 시작(1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근로자, 대학생, 소년단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겨울철 답사'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첫 답사에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주민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량강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집결한 뒤 혜산시의 사적지를 둘러보고 압록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 방송은 답사자들이 항일 빨치산의 회상기 학습, 합창경연, 예술소품경연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은 1956년 6월 처음 시작됐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목적

몽양 딸 여원구에 김정일, 80세 생일상 보내(1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인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에게 80세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방송은 생일상을 받은 여 의장과 그의 가족들이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했다"고 보도

  * 북한의 대표적 여성계 인사인 여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면담했고 2002년엔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 참석했었음.

北내각, '사회보장법 시행규정' 채택(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이 '사회보장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통신은 이 규정에 "사회보장금의 지불 대상과 기준, 사회보장자의 우대, 사회보장 수속, 사회보장금의 지출,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운영, 보조기구의 생산 및 공급 등 사회보장 사업을 더 잘해나가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설명
- 통신은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사회보장자들에게 국가의 부담에 의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잘 차려지게 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강조

노동신문, 李대통령 ASEM 발언 비난(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동족 압살을 위한 비열한 청탁 놀음' 제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북핵의 조기폐기와 북한 개방을 위한 지원·협력을 요청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거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며 반공화국(반북)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국제공조 청탁 놀음"이라고 반발

○ **北TV, 김정일 6, 7월 시찰 기록영화 방영(11/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6~7월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등의 여러 시설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을 모아 새로 제작한 기록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97.6~7)'를 방영, 이번 기록영화는 김 위원장이 평양시 대동문영화관과 옥류관, 청류관 등의 대형식당, 평북 대계도 간석지 건설장, 자강도 자연보호구 등을 방문해 지도하는 모습을 담음.
- 조선중앙TV는 10월 27일에도 김 위원장의 5월중 현지지도 장면을 모아 만든 기록영화를 방송했었음.

○ **민주조선, "남북관계는 밧줄당기기 아니다"(11/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4일 '북남관계가 밧줄당기기 경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는 "북남관계 문제를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밧줄당기기 경기처럼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끼리의 관계"로 "북과 남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것"이지 "누가 끌어당기고 끌려가는 식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토지정리로 수천정보 경작지 새로 확보(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조선의 대지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토지정리 사업을 지시한 이후 "수십만 정보의 토지가 정리돼 수천 정보의 새 땅이 생겨났다"고 9일 주장
- 이 기간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는 토지 20여만 정보가 정리돼 9만1천여㎢의 논두렁이 5만3천여㎢로 줄고, 151만5천여개였던 논배미는 55만7천여개로 줄어 6천120여 정보에 이르는 새 경작지를 얻었다고 신문은 설명, 평안남도, 평양시에서는 토지 9만4천400여 정보를 정리해 1천530정보의 새 땅을 얻어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또 지난 10년동안 "서해안 일대에서 대자연 개조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져 수천 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됐으며 그 결과로 "수십㎞의 해안선이 줄어들고 10개의 섬이 육지로 변했다"고 주장, 황해남도 강령군의 청수도 간석지, 평안남도 온천군의 금성 간석지 건설이 끝났고, 평안북도의 대계도 간석지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신문은 소개

○ 금융위기 속 北채권가격 3개월 새 반토막(11/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최근 3개월 새 '반 토막'이 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북한에 돈을 빌려준 서방은행들이 이의 일부라도 찾으려고 1994년부터 발행한 북한 채권의 현재 거래가는 액면가의 10분의 1 정도인 1달러당 12센트인데, 이는 3개월 전 25센트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도
- 방송은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모두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채권은 2002년 핵문제가 터진 후 10센트대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30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음.
-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스사의 스튜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지지부진한 6자회담의 진행과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융, 위기가 북한 채권의 거듭되는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고 설명,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한채권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 그는 "국제적 신용위기, 불안감 등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금융위기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있어도 북한 채권을 사려는 투자가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

○ 北, 쌀수확 200만t…작년 대비 70% 증가(11/7,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방송)

- 북한의 올해 쌀 생산이 지난해 120만t보다 70%가량 많은 200만t 가까이 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조기경보국장이 언급
- 그는 7일 방송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그러나 쌀과 옥수수 잡곡 등을 모두 합한 곡물 생산량은 북한의 작황을 실제로 최근 조사한 결과 FAO의 '11월 식량전망 보고서'가 추정한 540만t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 이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수해와 만성적 식량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대북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최소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
-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최근 공동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전체 인구의 3~5%가량인 60만명이 기아로 사망한 1990년대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기아와 관련한 사망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강조
- 한편 북한의 임산부와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치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긴급지원국의 패트릭 메코믹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올해 12월까지 1천50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했지만 지난달 말 현재 목표액의 45%인 678만 달러가량 확보했다면서 일부 사업의 취소나 축소 가능성을 시사

○ 北, 2009년부터 월1회로 시장 규제(제248호, 오늘의 북한소식; 11/6, 연합)

- 북한의 내각이 2009년 1월부터 매월 1일 하루만 시장을 열도록 하겠다는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6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248호에서 "이 문건에서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제와 법규칙을 강화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은 특히 평양시를 이번 조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10월 10일부터 모든 구역에서 매달 10일, 한달에 한번만 시장을 열도록 했으며 이는 그동안 매달 1, 11, 21일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소식지의 설명, 소식지는 평양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는 "(장사) 나이를 제한하던 것에서 한 차원 더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중앙당의 의도"라고 소개
- 북한 당국은 평양시의 공장 노동자 대상 강연회를 통해 "2009년 2월부터는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물건 값이 지금보다 완전히 떨어지고 나라 경제가 성장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로 "더 이상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강연회에서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조치를 잘 알고, 근로자들이 쓸데없는 말썽과 의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청진시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

○ 北, 南원자재 비누·신발 등 주민에 공급(11/4, 자유아시아방송)

-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된 원자재로 만들어진 비누와 신발 등의 제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방송은 남한에서 지원한 경공업 자재로 만든 비누와 신발 등이 평양시와 신의주 등 북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된 결과, 최근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은 "빨랫비누의 향이 좋고 거품이 잘 일어 속옷과 내의류 등 고급 의류를 세탁하는 데만 사용했다"면서 "역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원료로 만든 신발이 일품이다"는 평가가 주민들 속에서 나온다고 설명
-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도 "(북한 당국이) 1가구당 한달에 빨랫비누 2장과 세숫비누 한장씩을 공급했고, 개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운동화 1켤레씩 줬다"면서 "운동화는 품질이 좋아 시장에서 한 켤레에

2만원, 빨랫비누는 1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北, 2022년까지 과학기술5개년계획 연속 추진(2008년 11월, 조국)

-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 제3차 5개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이 되는 2022년까지 5개년계획을 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북한의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원장이 언급
- 이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를 국가총생산액의 3% 정도로 끌어올리는 여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리 부원장은 소개, 리 부원장은 올해 시작된 제3차 5개년계획의 목표에 대해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재의 기여율이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음.

  * 북한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2차례의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했고,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의 5개년 계획을 진행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황남 장수산에 40㎞ 탐방로 조성(11/2, 노동신문)

- '황해 금강'으로 불리는 북한의 장수산에 40여㎞의 '윤환선 탐승도로'와 전망대가 만들어지고 탐방객들을 위한 여관과 민속놀이장 등이 건설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신문은 '서해 명산 장수산에 새로 건설된 윤환선 탐승로를 따라서'라는 기행문을 통해 지난 2003년 6월 이곳을 시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년여의 공사 끝에 "100여 리의 윤환선 탐승도로를 새로 닦아 놓았다"고 보도

○ 김책공대 홍수예방 프로그램 개발(11/6, 조선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센터가 홍수의 진행 과정을 예측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큰물(홍수)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이 체계는 '숫자식 지도(디지털지도)'를 3차원적으로 모형화한 뒤 홍수 발생 우려 지역의 지리·지형 정보와 기상수문기관이 제공한 강수량, 강물의 수위와 유속, 저수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홍수의 진행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짐.

○ 조선옷전시회 개막(11/4, 조선중앙통신)

- 제6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리주오 경공업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1천600여점의 의류가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으로 나뉘어 전시되며 전시회기간 옷만들기에 대한 강의도 진행됨.

◎ **북한의 교예단 최고상 수상(1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교예단이 중국 우한에서 10월 31일 끝난 제8차 우한국제교예(서커스)축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北문학지, "생활을 밝게 그리자"(10/25, 문학신문)**

- '문학신문' 최근호(10.25)는 '생활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평론을 통해 "생활을 미화 분식하는 것도 진실성에 손상을 주지만 무겁게, 어둡게 그리는 것 역시 진실이 아니다"며 문학작품 창작에서 '낭만'과 '희망'을 담을 것을 작가들에게 주문
- 신문은 비료부족으로 북한 당국이 힘을 쏟고 있는 퇴비 생산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린 한 농장원을 다룬 단편소설을 사례로 들어 이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독자들을 감동시키려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비바람이 억세게 부는 날, 달 없는 캄캄한 밤의 풀베기"를 주로 그렸으며, "주인공들은 너무도 근엄하며 오직 일에 대한 말만 주고받는다"고 지적하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소설을 인위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평
- 신문은 작가들에 대해 "피상적인 관찰, 주관적인 견해로 눈에 띄는 생활의 이런저런 형상을 본질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생활의 진실이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낙관이고 확신이며 오늘에 대한 낭만"이라고 밝은 면을 그릴 것을 주문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힐, "6자회담 조속 개최 합의"(11/7, 연합)**

- 미국 행정부가 정권이양기에 들어간 가운데 6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핵 검증 이행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전망
- 힐 차관보는 6일 저녁 뉴욕의 한 식당에서 김 특사가 배석한 가운데 리 국장과 식사를 겸해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6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고자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힘.
- 힐 차관보는 지난달 평양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했고 양측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료채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6자회담 틀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

게 다룰 것인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힘.

- 리 국장은 검증문제의 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는데 더 무슨 진전이 필요하냐. 이미 다 합의됐는데.."라고 답변
-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날짜를 정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날짜를 최대한 빨리 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6자회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우리가 날짜를 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11월말까지 뭔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12월 넘어서까지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 이에 대해 리 국장은 "6자회담은 우리와 미국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장국인 중국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서로 연계해야 될거 같다"고 애매하게 말해 양측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남아있음을 내비쳐 실제 6자회담이 성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힐 차관보는 미국의 정권이양과 관련한 북핵 협상에 대해 "정권 이양기에 새 정부에 완전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고, 나는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

○ 北, 핵시설 샘플채취 불허 통보(11/6, 교도통신)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내 핵시설 검증을 위한 샘플 채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6일 보도, 교도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이 10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
- 박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에게 핵시설 접근과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 논의 및 해당 인력과의 인터뷰는 허용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북한 영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나. 북·미 관계

○ 北·오바마 당선인측 첫 접촉(11/8, 연합)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당선인측이 북한 정부 대표단과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첫 접촉을 가짐.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가 7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한반도 전문가 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
- 이날 회의에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윈스턴 로드 전 동아태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 대사,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정치학과

교수, 또 리 국장과 북핵 협의를 가진 성 김 미국무부 북핵특사 등이 참석했지만, 관심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진 자누지와 리 국장간의 대화 내용에 모아졌음.

- 특히 리 국장은 전날 북핵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여러 행정부를 대상(상대) 해 왔고 우리와 대화하려는 행정부, 우리를 고립하고 억제하려는 행정부와도 대상했다"며 "우리는 어느 행정부가 나와도 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오바마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도 대응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
- 그러나 평소 북·미 접촉시 극도로 발언을 자제해 왔던 북측 대표가 '오바마 당선에 관한 의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건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힌 것은 북측이 오바마 정권과의 직접 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 리 국장과 전날 만찬회동을 가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미간 현안이 오바마 정부로 제대로 인수인계되는지 (북측이) 확인하고 싶어해,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밝혀 북한의 관심이 현 정부 대화 채널이 아닌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
- 이날 NCAFP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져 자누지와 리 국장의 구체적 발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北, '오바마 당선' 이틀만에 신속 보도(1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 조선중앙방송은 7일 오후 9시15분 "미국에서 4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국회상원 의원 버락 후세인 오바마, 47살, 흑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당선됐다"며 "오바마는 내년 1월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고 논평없이 보도
- 그러나 방송은 "그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매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다"고 밝힘. 북한이 이번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틀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
  * 2000년 11월7일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으나 북한 매체들은 침묵하다가 조선중앙방송이 10여일 뒤인 18일 대선 실시를 논평없이 보도했었으며, 2004년에는 미 백악관이 11월 3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사실상 선언하고 닷새가 지난 9일 노동신문이 "재선된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로 부시 대통령의 재선 사실을 전달

北, 美에 아태지역 무력철수 요구(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과 그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다며 아태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의 철수를 주장

- 신문은 이어 과거 소련의 남하 방지를 이유로 이 지역에 미군 무력을 주둔시켰다면 "냉전이 종식되고 군사적 경쟁 대상이 없어진 오늘에 와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기지와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을 조건과 명분이 없다"고 강조

○ **北, 美 괌기지 확대계획 비난(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무모한 선불질 기도를 버리라' 제하 논평에서 미국이 괌을 태평양지역 전략지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데 대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에게도 정당방위, 자주권 수호를 위한 선제공격의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적들의 선제공격 기도에 대비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

다. 북·일 관계

○ **日, 北 우라늄 강제 재조사 주장 안해(11/5, 연합)**

- 일본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예상 합의문에 대해 입장을 원만하게 정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일본 고위 외교관이 4일 밝힘. 북핵 현안에 정통한 이 외교관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재조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검증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 또한 플루토늄량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북한 핵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북·미 간의 협의 내용이 문서에 세부적으로 기술돼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대표, 유엔연설서 日 과거청산 촉구(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표가 10월 29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만은 여전히 지난 시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서 감행한 엄중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배상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그는 또 일본 당국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동포들도 차별·탄압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깨끗한 과거청산과 현실 자각이 없이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日·EU 대북 인권결의안에 "주권 침해"(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부당한 인권소동'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자주

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라고 비난

- 통신은 특히 일본을 지목,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여지도 없다"며 "오늘 일본은 타민족에 대한 극심한 배타주의로 지난 시기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인권죄악을 덧쌓고 있다"고 주장
- 통신은 또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로 인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회원들의 가족상봉이 차단됐다며 "저들의 인권범죄의 피해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태도는 인권존중의 초보도 갖추지 못한 일본의 후안무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

  * 일본과 EU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해 11월말 표결, 총회로 넘기게 됨.

○ 北, 日 조총련 산하단체 수색 비난(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제 손으로 제 눈 찌르는 격의 자살행위' 제하 논평에서 일본 공안 당국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단체 압수수색을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 압력이 필요하다'는 우루마 이와오(漆間巖) 일본 관방부 장관의 발언과 연관지으며 "우리 공화국(북한)을 압박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 반동들 특유의 간악하고 비열한 흉계의 산물"이라고 비난

라. 기타외교 관계

○ 북·카타르 문화협조 협정 체결(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카타르가 5일 카타르 도하에서 정부간 문화협조 협정을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카타르 주재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카타르측에서 문화예술유산성 총서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

  * 북한은 1993년 1월 11일 카타르와 수교

○ 북, 이란과 우호협력관계 증진(11/7, 신화통신)

- 북한이 이란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7일 보도
- 통신은 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중인 모하마드 아크바리 이란 부통령을 위한 리셉션 석상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 양 부위원장은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형성된 양국 유대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
- 아크바리 부통령도 연설을 통해 "이란과 북한 양국 지도자들이 만들어온 양국 우호협력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 이란 민족청년조직을 이끌고 6일 평양에 도착한 아크바리 부통령은 7일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과 교류·협조 양해문을 체결

김영일 北외무성 부상, 미얀마 방문(11/7,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6일 오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도착해 5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미얀마 관리가 보도, 김영일 부상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미얀마간 협력 강화 방침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도 10월 27일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면담, 북한과 미얀마는 지난 1975년 수교했지만 1983년 10월 발생한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인해 단교했다가 지난해 4월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군수물자 교역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는 최근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단체, 北지방병원 3곳 재건 지원(11/7,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미어 어전스'가 지원하는 북한내 지방병원 3곳의 개보수 공사가 내달 마무리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이 단체의 아시아 담당인 린젤씨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보건성이 2007년말 홍수로 파괴된 병원 3곳에 대한 복구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평남 평성시의 도(道)병원은 이미 공사를 마쳤고 황북 토산군 병원은 이달 말, 남포시 병원은 다음달 말 공사가 끝난다고 밝힘.
- 그는 병원 재건사업의 중요부분중 하나로 의료장비와 기구들을 구비하는 것을 들고, "중국과 유럽에 주문한 의료장비들이 모두 도착하는 다음달 경이면 재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언급, 이들 병원 3곳의 개보수 비용으로 스웨덴 국제개발청과 프랑스정부가 지원한 80만달러가 투입됐으며, 완공되면 1년에 1만1천5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이 단체는 2009년에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토끼 사육과 같은 식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내년도 대북지원 예산으로 90만달러를 책정했다고 방송은 덧붙힘.

北리희철 스웨덴대사, 핀란드 대사 겸임(1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리희철 스웨덴주재 대사가 핀란드 대사를 겸임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중앙방송은 6일 리 대사가 지난달 31일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보도
- 리 대사는 스웨덴에 주재하면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대사도 겸직

* 북한과 핀란드는 1973년 6월 1일 수교 후 방송협조협정, 섬유협정 등을 체결

3. 대남정세

北군부,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11/8, 연합)

- 북한 군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부 조사단 6명이 6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입주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보도
- 북측은 앞서 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조사단 방문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으며, 당일 실사에는 우리 측 인사인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소식통은 "조사단원들은 '실태요해'를 명목으로 공단을 방문, 현지 법인장과 공장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오전 중 11개 입주업체들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정수장과 오.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들을 둘러봤다"며 "또 남·북측 근로자 수, 업체 현황, 봉급, 작업환경 등을 묻고 갔다"고 언급
- 특히 이들 조사단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고 소식통은 보도

개성공단 탁아소설치 기금지출 심의(11/7, 연합)

- 정부는 내주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김하중 통일부 장관)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탁아소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출건 등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짐.
-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 이후 교추협 회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 신규 지출을 의결한 첫 사례로 기록, 정부 소식통은 금강산 사건 이후로도 교추협을 거치지 않은 소액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은 있었지만 교추협 회의를 거쳐 신규로 기금을 의결한 건은 없었다고 보도

남북 통일염원 기도회 평양서 성료(11/6, 연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 103명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교인 40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평양시내 봉수교회에서 3시간여 동안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회'를 개최, 이날 기도회에서는 특히 예배 참석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성찬식이 열려 의미를 더함.
- 미리 입장한 북측 교인들이 박수로 남측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가운

데 개회한 예배에서 강형섭 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단 60여 년이 흘러 해방둥이들은 어느덧 환갑을 맞아 며느리와 손자를 거느린 대가장이 됐다"면서 "통일을 후세의 손에 넘긴다면 이는 수치이자 민족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

- 권오성 NCCK 총무는 "기도하면 실현된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면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힘껏 기도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 간구하면 기도로 능히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

강진쌀 2천가마 '북한 간다'(11/6, 연합)

- 강진군은 "오는 10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랑의 강진쌀 2천가마(가마당 20kg)가 북한 개성시 봉동역을 향해 출발한다"고 6일 보도, 이 쌀은 지난 6월초부터 강진군 등 각 기관과 사회단체, 주민 등이 모금한 8천만원으로 마련, 강진쌀은 차량으로 남·북측 출입구사무소를 거쳐 11일 오전 개성시 봉동역에서 북한에 전달
- 전달식에는 황주홍 강진군수, 이삼현 강진군의회의장, 관내 5개 종교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사랑의 쌀 전달과 함께 내년 8월로 예정된 청자 뱃길 재현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도 북측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 표명(11/6, 통일부)

- 통일부는 6일 계속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거듭 요청,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임진각 지역에서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10여만장을 살포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 단체들에 그동안의 남북간 합의정신과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전단 살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제 거듭 요청했다"고 밝힘.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관광 중단에도 투자 지속

- 금강산 관광 중단이 4개월째에 이르고 있지만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 4일 금강산 골프장 운영사인 에머슨퍼시픽에 따르면 아난티 골프장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임직원 25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명이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식당, 노천카페 등도 오픈 준비를 마치고 객실 내 시설을 업그레이드함.

WFP 식량실태 평가 이후 北지원 결정(11/3,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對北) 인도적 식량 지원과 관련,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식량사정평가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

고 밝힘.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언제든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준비는 돼 있지만, 북한이 현재 추수중인 만큼 상황을 보고 있다”고 언급

- 김 장관은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정부, 오바마측과 북핵 첫 조율(11/9)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은 5~8일 미국을 방문,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한반도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를 7일 저녁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소식통이 9일 전했음. 이 소식통은 "양측의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양측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지금처럼 한미간 조율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음.
- 황 단장은 자누지 팀장으로부터 NCAF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음. 리 근 국장은 방미기간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및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 등과도 만나 검증문제 등을 협의했음. 고위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 시기와 관련, "리 근 국장이 평양으로 돌아가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한 뒤 중국이 관련국들의 의견을 모아 회담 개최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힐 "시료채취 이견 없다. 회담 조속 개최 합의"(11/7)

- 미국 행정부가 정권이양기에 들어간 가운데 6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핵 검증 이행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전망.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성 김 북핵특사는 방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이날 뉴욕에서 잇따라 만나 북핵 검증, 핵 불능화 완료,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협의했음.
- 힐 차관보는 이날 저녁 뉴욕의 한 식당에서 김 특사가 배석한 가운데 리 국장과 식사를 겸해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6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고자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힐 차관보는 지난달 평양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했고 양측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음. 그는 시료채취에

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6자회담 틀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날짜를 정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날짜를 최대한 빨리 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6자회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음을 지적했음. 그는 이어 "우리가 날짜를 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11월말까지 뭔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12월 넘어서까지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음.
- 이에 대해 리 국장은 "6자회담은 우리와 미국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장국인 중국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서로 연계해야 될거 같다"고 애매하게 말해 양측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남아있음을 내비쳐 실제 6자회담이 성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힐 차관보는 미국의 정권이양과 관련한 북핵 협상에 대해 "정권 이양기에 새 정부에 완전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고, 나는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음.

中, 오바마 집권 후에도 6자회담 불변 전망(11/6)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 집권하든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간에 이런 공동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 친 대변인은 "중국은 6자회담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부단한 전진을 통해 적극적인 성과를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미국(차기 정부)과 밀접한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고 미국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6자회담 추진과정에서 중·미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음. 친 대변인은 또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중·미 관계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최근의 중·미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중·미 양국간에 체결된 3개 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오바마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과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산업분업화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지 중국의 잘못이나 단순히 환율 문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 그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 많으며 값싸고 질 좋은 중국산 제품은 미국인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의 물가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음. 친 대변인은 오바마 정권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할 것이란 분석과 관련, "보호무역주의는 중·미 양국에 모두 불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北, 핵시설 샘플채취 불허 통보"<교도통신>(11/6)

-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과 워싱턴발 기사에서 협상 소식통을 인용,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5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음. 박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에게 핵시설 접근과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 논의 및 해당 인력과의 인터뷰는 허용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북한 영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시설 검증을 위해 샘플링을 포함한 과학적 절차를 이용하는데 북한이 합의했다는 지난달 11일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음.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 샘플 채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북한 "일본 외 다른 나라 중유 받겠다"(11/4)

- 외무성 소속 연구원인 리평덕 씨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참가국인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를 다른 나라가 제공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그는 "100만t이 보장되기만 하면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음.
- 리 씨는 또 일본이 제기하는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언제 시작할지는 일본이 얼마나 빨리 지난 8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음. 그는 "일본은 납치 문제를 제기해 6자회담을 사사건건 방해해 왔으며 6자회담 합의 의무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
- 그는 또 "일본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대신 제재를 연장했다"면서 일본이 지난 8월 양국간 합의를 깨뜨렸다고 주장했음.

나. 미·북 관계

"북한, 장성택이 통치하고 있어"<더타임스>(11/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속에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8일 서울발로 보도. 한국 정부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비밀 경찰을 지휘하는 62세의 장성택이 핵심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타임스는 전했음. 한국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의식이 있고, 아마도 걸을 수도 있지만 8월 중순에 갑작스런 뇌졸중을 겪은 후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믿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음.
-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부는 뚜렷한 불안의 징후 없이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장성택은 평양의 엘리트 학교에서 교육받았으며, 모스크바에서 3년 동안 공부한 후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와 결혼했음. 그는 현재 사법 및 검찰,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를 관장하는 당 행정부장으로 '실세 중 실세'로 꼽힘.

"오바마, 부시보다 더나쁜 對北상황 직면"<WP>(1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빠른 시일내 북핵·이란핵·중동평화협상 등 3대 외교현안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노선을 따를지, 일부를 손질할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
-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오바마 당선인은 2001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넘겨줬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을 물려받게 됐다고 포스트는 지적.
- 신문은 선거 기간에 오바마 당선인은 일련의 외교정책을 발표해왔지만 16개월이내에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 이외에 이들 정책들은 고착화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것들이었다고 평가했음.
- 포스트는 8년전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는 이른 바 'ABC(Anything But Clinton)정책'을 발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오바마 측근들은 부시 대통령이 넘겨줄 외교현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음.

北매체, 美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수정 요구(11/8)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위기는 "그릇된 대외정책과 힘의 논리가 몰아온 필연적 결과"라며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8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제목의 5일자 논평에서 "세계는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극화의 길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로 변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민주조선은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정치외교적 독단"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을 총체적 파산으로 이끌어가는 대외정책의 부당성을 깨닫고 강권과 일방주의에 기초한 세계제패 전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음.

北-오바마 당선인측 '우호적 분위기' 첫 만남(11/8)

-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는 이날 오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한반도 전문가 회의에 함께 참석했음. 회의에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윈스턴 로드 전 동아태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 대사,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정치학과 교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 또 리 국장과 북핵 협의를 한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 등이 참석했음.
- NCAFP 관계자는 "지난 6년동안 북.미 간 비공식 채널로 활용돼 온 이 회의는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는 회의 참석자들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고 말했음.
- 자고리아 교수는 회견에서 "오늘 회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음.
- 그는 "장기적인 북.미 관계 정상화 전망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 검증 문제 뿐아니라, 차기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물들과 북한 정부 관리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겸한 것이었다"고 말해 이날 회의의 핵심 의미는 북 측과 오바마 차기 정부 간 첫 비공식 접촉임을 재확인했음.
- 그는 특히 "북한 측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정권이양 기간에도 '계속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며 "미국 정부의 북.미대화 추진력(모멘텀) 유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북한 측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내게는 고무적이었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간 대화에 '근본적 변화는 없이' 진행돼야 할 것 이라면서 "우리가 느끼기엔 오바마 정부가 현재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의 추진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음.
- 자고리아 교수는 "물론 (북.미 대화의) 앞길에 장애물들이 분명 있을 것이며, 지난 6년 동안에도 쉽지 않게 이어져 왔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넘어갈 당시 양 측은 근본적으로 대북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기도 했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음.

"美, 김정일 건강 확인위해 사진 분석중"<국무부>(11/8)

- 미국은 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사진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사진 진위와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진을 봤지만 그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고 말했음.
- 우드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 쪽에서 그 사진들을 들여보다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 한편 조선중앙TV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제2200부대와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지난 5일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 20여장을 공개한 바 있음.

北-오바마 당선인측 첫 접촉(11/8)

-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가 7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한반도 전문가 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
- 이날 회의에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윈스턴 로드 전 동아태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 대사,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정치학과 교수, 또 리 국장과 북핵 협의를 가진 성 김 미국무부 북핵특사 등이 참석했지만, 관심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진 자누지와 리 국장간의 대화 내용에 모아졌음.

"김정일 死後에도 북한은 불변"<FP>(11/7)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어느 누가 권력을 차지하든 간에 북한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가 7일 전망.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 유고(有故)에 대해 공포에 빠지거나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서도 안된다는 것.
- FP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김 위원장의 유고시 권력을 장악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그의 매제인 장성택(張成澤)을 꼽으면서도 누가 권력을 승계하든, 또한 새로운 정권이 어떤 체제로 운영되든 간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키고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대외 원조를 바라는 북한 정권의 전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北 리근, 美 새정부와 대화 용의..美 태도에 달려(11/7)

-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은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새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고 이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리 국장은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저녁을 겸한 회동을 한 뒤 미 새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새 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음.
- 리 국장은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추구하는 행정부를 대상(상대)해 왔고 그 어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위하더라도 그에 준비돼 있다"고 말해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에 나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이에 앞서 리 국장은 이날 낮 뉴욕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에서 미 국무부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에도 오바마 당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의 여러 행정부를 상대해왔고 우리와 대화하려는 행정부, 우리를 고립하고 억제하려는 행정부와도 상대했다"며 "우리는 어느 행정부가 나와도 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었음.
- 리 국장은 이날 미국측과의 논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자리를 뜨면서 다른 질문에는 응하지 않다가 오바마 당선에 관한 질문이 몇차례 나오자 "이건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혀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북한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임.

◎ 北-美 뉴욕서 연쇄 회동(11/7)

-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와 방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은 6일(현지시간) 뉴욕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사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북핵 검증, 핵불능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음.
- 김 특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비핵화 2단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부터 앞으로 계속 짚어야 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증과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음. 리 국장도 "10.3합의를 놓고 북미가 어떤 사항을 이행했는지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 "논의는 폭넓고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이런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논의는 진전을 이루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단지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이들은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의장국 입장에서 개최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김 특사는 기자들에게 6자회담 일정은 중국이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음.
- 외교소식통은 "힐 차관보와 리 근 국장은 수석과 차석대표라는 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처럼 북미 접촉이 이뤄졌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北 리근 "어느 美 행정부에도 대응준비 돼있다"(11/7)

-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은 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어느 행정부에도 대북 정책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음. 리 국장은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사무실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와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당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음.
- 리 국장은 "미국의 여러 행정부를 대상(상대)해왔고 우리와 대화하려는 행정부, 우리를 고립하고 억제하려는 행정부와도 대상했다"며 "우리는 어느 행정부가 나와도 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음.
- 리 국장은 이날 미국측과의 논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자리를 뜨면서 다른 질문에는 응하지 않다가 오바마 당선에 관한 질문이 몇차례 나오자 "이건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혀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북한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임.
- 리 국장은 이날 북미 회동과 관련 "10.3 합의에 따라 각측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깊이있게 대화를 나눴고 논의는 부드럽고 폭넓게 잘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는 또 "이날 논의는 진전을 이루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단지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며 6자회담 일정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 "北 쌀수확 200만t..작년 대비 70% 증가"<FAO>(11/7)

- 북한의 올해 쌀 생산이 지난해 120만t보다 70%가량 많은 200만t 가까이 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조기경보국장이 밝혔음.
- 그는 7일 방송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그러나 쌀과 옥수수 잡곡 등을 모두 합한 곡물 생산량은 북한의 작황을 실제로 최근 조사한 결과 FAO의 '11월 식량전망 보고서'가 추정한 540만t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수해와 만성적 식량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대북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최소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음.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최근 공동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전체 인구의 3~5%가량인 60만명이 기아로 사망한 1990년대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기아와 관련한 사망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덧붙였음.

○ 北 2세미만 10% 폐렴 등 중증호흡기 질환<IFRC>(11/4)

- 4일 입수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최근 보고서 '북한지원 사업 계획 2009~10'은 북한 당국이 올해 중반 "국가차원의 영양평가"를 실시했다면서 "24개월 미만 유아의 9.8%가 폐렴을 포함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또 "폐결핵은 전체 인구의 보건에 큰 영향을 끼쳐 연간 2천300명의 환자가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 영양평가를 통해 각 도(道) 어린이의 건강상태와 일반가정의 식량상황에 대한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북한 주민의 보건위생 실태를 소개했음.
- 북한은 필수 의약품의 자체 생산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1차 보건위생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의료품의 60~70%는 국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 생산 증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FRC와 북한 보건당국은 2009년 이후 의약품 보급을 증대시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IFRC는 "30년전 붕괴된 식수공급 체계"의 복구를 위해 지난 10년간 280여개의 식수, 위생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2010년까지 300개 지역 50만명을 위한 식수, 위생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北 올해 식량부족분 10만t"<美전문가>(11/4)

-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에 대한 추정치가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들쭉날쭉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년간 북한의 곡물량과 곡물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만t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음.
- 그는 식량농업기구의 추정치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유엔기관은 북한 당국이 제출한 곡물생산량 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비해 자신을 비롯한 서방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련통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엔기관은 북한 주민들의 곡물소비량을 지나치게 높게 잡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그는 FAO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매년)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해왔는데 그렇다면 "아사가 발생해도 벌써 발생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8년간 북한은 한번도 아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음.

○ 北대표, 유엔연설 유엔사 해체 요구(11/3)

- 북한 대표가 유엔 연설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UNC)를 "냉정의 산물"이라며 "지체없는 해체"를 요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북한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63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는 "행정,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며 "정전된 지 5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조선(남한)에 유엔 통제 밖에 있는 유엔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 그는 "미국이 한사코 유엔사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합리화, 영구화하며 유사시 임의의 시각에 조선반도(한반도)에 다국적 무력을 손쉽게 끌어들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

○ LAT, 기아로 고통받는 北주민 실상 소개(11/3)

-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일 북한 남포발 장문의 기사에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소개. 신문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방을 둘러보니 굶주림의 참상을 볼 수 있었다면서 이것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인플레이션, 북한과 주변국간 관계악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홍수 때문이라고 전했음.
- 평양에서 약 40㎞ 떨어진 남포는 한때 번성했던 항구도시였지만 지금은 국제 구호물자를 하역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평일 아침인데도 이 도시의 거리에는 많은 주민이 길가에 앉아 실업자나 노숙자처럼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고 신문은 소개. 신문은 북한 당국이 식량 생산량을 늘리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기계와 비료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中, 北 김정일 사후 대비하자는 美 제안 일축"<WSJ>(11/7)

- 중국 정부가 건강이상설에 시달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정치적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논의하자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
- 올해 66세인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뇌졸중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측이 잇따라 그의 활동상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인된 바가 없는 실정. 이에 따라 미 국무부 및 백악관 당국자들은 최근 수 개월간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중국 측 당사자들과 접촉해 김 위원장 사후 북한 지도체제 변동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유사시 대응계획 논의를 타진해왔다는 설명.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지도체제와 관련된 관련국들의 논의 자체가 평양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절했다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음.
- 미국의 한 당국자는 "중국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

며 이 같은 미 정부의 의사 타진은 대부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음.

◦ **中, 김정일의 연일 공개활동에 주목(11/6)**

- 중국은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시기에 맞춰 연일 공개 활동을 나서며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예사롭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음.
- 김 위원장의 행보와 때를 같이해 미국을 방문 중인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오는 7일께 미국 측과 북핵 문제 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북한이 오바마 상원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북-미 협상에 중대 돌파구를 열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대미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중국측의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은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인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직접 수교를 하려는 데 대해 겉으로는 환영과 지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내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핵불능화 속도 늦춰"<교도>(11/9)**

- 북한이 핵불능화 이행의 상응조치인 대북 에너지 제공이 지체되고 있다며 불능화 작업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 이 통신은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해 근처 저장시설로 이전하는 핵연료봉수가 지난달 하루 30개에서 최근 15개로 줄었다고 전했음.
- 통신은 그러면서 다른 소식통을 인용, 조만간 개최될 전망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에너지 지원 일정을 명확히 할 경우 불능화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음.

◦ **"日, 北 우라늄 강제 재조사 주장 안해"<이타르-타스>(11/5)**

- 일본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예상 합의문에 대해 입장을 원만하게 정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일본 고위 외교관이 4일 밝혔음. 북핵 현안에 정통한 이 외교관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재조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검증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음.
- 또한 플루토늄량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북한 핵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북.미 간의 협의 내용이 문서에 세부적으로 기술돼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그는 전했음.

北대표, 유엔연설서 日 과거청산 촉구(11/5)

- 북한 대표가 유엔 연설에서 "일본만은 여전히 지난 시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서 감행한 엄중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배상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음.
- 북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 강점시기에 감행된 100여만명 학살과 840만명의 납치·연행, 20만명의 일본군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상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음.
- 그는 또 일본 당국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동포들도 차별.탄압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깨끗한 과거청산과 현실 자각이 없이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北, 日·EU 대북 인권결의안에 "주권 침해"(11/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라고 비난했음. 중앙통신은 이날 '부당한 인권소동'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일본을 지목,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여지도 없다"며 "오늘 일본은 타민족에 대한 극심한 배타주의로 지난 시기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인권죄악을 덧쌓고 있다"고 주장했음.
- 통신은 또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로 인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회원들의 가족상봉이 차단됐다며 "저들의 인권범죄의 피해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태도는 인권존중의 초보도 갖추지 못한 일본의 후안무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과 EU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해 11월말 표결, 총회로 넘기게 됨.

日민주, 대북 추가경제제재안 마련(11/3)

-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위원회 설치를 보류한 것과 관련,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북 추가경제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일 보도.
- 추가경제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수출 및 선박 입국 전면 금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14개항에 달함. 민주당은 5일 당 납치문제대책본부 간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에게 수용을 촉구할 방침.
- 원안에 따르면 추가 제재는 인적, 물적, 금전적 제재라는 3가지 틀로 이뤄졌음.

- 인적 제재는 공무원의 도항 원칙 보류 및 국민의 도항 자숙 요청이라는 현재 조치를 전면 도항 금지로 강화하고 위반자에는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하도록 했음. 물적 제재는 쇠고기, 귀금속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에 한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강화, 앞으로는 모든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 북한이 전세를 낸 외국 국적의 선박도 입항을 금지토록 했음. 금전적 제재는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했던 입출금 금지 조치 대상을 북한과 관련된 모든 기업과 단체 계좌로 확대하도록 했음. 또 북한과 거래가 있는 해외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간의 거래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마. 기타

○ 北, 이란과 우호협력관계 증진키로(11/8)

- 북한이 이란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7일 보도. 통신은 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 중인 모하마드 아크바리 이란 부통령을 위한 리셉션 석상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음. 양 부위원장은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형성된 양국 유대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음.
- 아크바리 부통령도 연설을 통해 "이란과 북한 양국 지도자들이 만들어온 양국 우호협력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이란 민족청년조직을 이끌고 6일 평양에 도착한 아크바리 부통령은 7일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과 교류.협조 양해문을 체결했음.

○ 김영일 北 외무성 부상 미얀마 방문(11/7)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6일 오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도착해 5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미얀마 관리가 밝혔음. 김영일 부상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미얀마간 협력 강화 방침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도 지난달 27일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면담한 바 있음. 북한과 미얀마는 지난 1975년 수교했지만 1983년 10월 발생한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인해 단교했다가 지난해 4월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했음.
-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군수 물자 교역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는 최근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프랑스단체, 北지방병원 3곳 재건 지원(11/7)

-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미어 어전스'가 지원하는 북한내 지방 병원 3곳의 개보수 공사가 내달 마무리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7일 보도.
- 이 단체의 아시아 담당인 린젤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보건성이 지난해 말 홍수로 파괴된 병원 3곳에 대한 복구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평남 평성시의 도(道)병원은 이미 공사를 마쳤고 황북 토산군 병원은 이달 말, 남포시 병원은 다음달 말 공사가 끝난다고 밝혔음. 그는 병원 재건사업의 중요 부분중 하나로 의료장비와 기구들을 구비하는 것을 들고, "중국과 유럽에 주문한 의료장비들이 모두 도착하는 다음달 경이면 재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이들 병원 3곳의 개보수 비용으로 스웨덴 국제개발청과 프랑스정부가 지원한 80만달러가 투입됐으며, 완공되면 1년에 1만1천5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음. 이 단체는 내년에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토끼 사육과 같은 식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내년도 대북지원 예산으로 90만달러를 책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였음.

"유엔대북인권결의안서 '6.15, 10.4선언지지' 빠져"<RFA>(11/6)

- 한국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서 지난해 결의에 포함됐던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당초 (초안에) 포함됐다가 실제 제출안에선 삭제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이 방송은 현재 유엔에서 회람중인 대북 인권결의안을 입수했다며 "이번 결의안에는 올해 초 출범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두 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삭제됐다고 전하고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갔다고 덧붙였음.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0일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 정상회담 개최, 10월 4일 남북 양측 지도자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최근 6자회담의 진전 등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장려하며..."라는 대목이 담겨 있음.
- RFA는 올해 결의안엔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고 보도.
- 또 지난해 자금전용 의혹 때문에 취소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사업의 재개를 놓고 "UNDP와 북한 당국간에 협의가 개시된

점을 주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방송은 덧붙였음.

○ **김정일 치료설 佛외과의사 평양 방문 시인(11/5)**

-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뇌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 루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평양을 방문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5일 보도.
- 후지 TV의 보도에 따르면 루 박사는 지난달 24일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CA121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이를 포착한 취재진이 "평양에 가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를 시인했음. 루 박사는 평양행의 목적이 김 위원장의 치료를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VWP 범죄인정보교환 협정 서명(11/9)**

-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전했음.
- 이태식 주미대사와 폴 슈나이더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서명한 이번 협정은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이 넘는 구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심가는 여행자에 대해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외교부 당국자는 "합법적인 여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방미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음. 외교부는 이르면 10일 국회에 이번 협정의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 90일 이내의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
- 외교부 당국자는 "17일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VWP 실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비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 측에서 의심가는 여행자에 대한 범죄정보를 우리 측에 문의하면 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범죄인을 거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일, '안보토의' 정례화하기로(11/8)

-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6년만에 '안보토의' 모임을 했으며,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8일 전했음.
- 국방부는 "이번 모임 대표들은 지난 2002년 5월 중단된 이후 재개된 이번 토의가 아주 유익했으며, 계속해서 모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음. 3국 대표들은 모임에서 자국의 국방정책을 설명한 뒤 지역안보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인도주의적인 재난 구조와 재건,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공헌해 나가기로 했음.
- 3국 안보토의에는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마쯔모토 류타로(松本隆太郎)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음. 한.미.일 안보토의는 북핵 1차 위기가 대두한 1994년부터 매년 1차례씩 각국의 국방부 실장이나 국장급을 주축으로 200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나, 이듬해 6자회담이 출범함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가 최근 미측의 제의에 따라 재개됐음.
- 미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30차 군사위원회(MCM)에서도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의 증진을 강력히 희망하기도 했음.

○ 한·미, 북미회동 앞서 북핵의견 조율(11/5)

- 한국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외교 소식통은 5일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와의 협의를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떠났다"면서 "북·미 협의를 앞두고 미국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성 김 특사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북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6일(현지시간) 만나 검증의정서 및 6자회담 개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 소식통은 "황 단장이 리 근 국장과 직접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북.미 협의가 끝난 뒤에도 한.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일 안보토의' 7일 워싱턴서 개최(11/5)

- 이번 회의는 2002년 5월 이후 6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데이비드 세드니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마쯔모토 류타로 일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
- 국방부 관계자는 5일 "한.미.일 안보토의가 2002년 5월 도쿄(東京)

에서 개최된 뒤 이듬해 6자회담이 출범함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 따라 3국간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돼 다시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토의 재개는) 미국 측이 제의한 것"이라며 "지난 5월 3국의 실무자들 사이에 11월경에 만나자고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음. 이상희 국방장관도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상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2002년 이후 중단된 3국간 안보토의 연내 재개 등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나. 한·중 관계

○ 中청년대표단 방한..5일 한중포럼 개최(11/3)

-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青團) 베이징(北京)시위원회 및 산하 학생회 간부 101명이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초청으로 내한했음. 션첸판(沈千帆.36) 베이징시위원회 부서기가 이끄는 공청단 대표단은 이날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조은희 서울시 여성정책협력관 면담(4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예방, 한중 엘리트대학생 추계포럼(경희대.이상 5일), 한.중대학생 공연(6일 영남대) 등 학술.문화교류행사와 경주, 포항에서의 문화 체험, 산업시찰을 한 뒤 8일 출국.
- 미래숲(대표 권병현 전 주중대사)과 공청단 베이징시위원회(대표 류지엔<劉劍> 서기)가 공동 주관해 5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광릉캠퍼스)에서 여는 포럼에서는 양국 대학생이 ▲베이징 올림픽 후 교류 방안 ▲늘어나는 사막과 줄어드는 숲 ▲생물종의 다양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벌임.
- 중국대표단은 6일 영남대로 이동해 댄스 동아리 맥스 앤드 제니스의 공연, 우슈(무술) 시범, 풍물놀이, 육현의 클래식 기타 연주 등을 지켜본 뒤 중국의 전통공연을 선보일 계획. 양국 대학생들은 작년 5월 베이징대 포럼을 시작으로 봄, 가을 양국을 오가며 행사를 진행해 왔음.

다. 미·러 관계

○ 美 "러와 군축회담 곧 개최 희망"(11/7)

- 미국 정부는 전력핵무기감축협상(START)이 내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추가로 전략 핵무기 탄두를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러시아측에 이미 제안했으며 향후 2-3주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국무부 관리가 6일 밝혔음.
- 존 루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활발한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측과 협상일정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2~3주내에 (러시아측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음.

- 미국은 이미 2~3주전에 러시아측에 START 후속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했으며 이와 별개로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 별도 협상을 제안했다고 루드는 덧붙였음.

[참고 1] 〈오바마와 한반도〉 주요 대북 어록 (11/5)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집권하면 첫 해에 북한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가능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방법론상 지난 8년간의 부시 행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음.

그는 "6자회담과 병행해 미국과 북한이 양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같이 말했으나, 이는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더 강한 제재를 위해서도 일단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을 소진해야 한다는 뜻.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관여정책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임.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2006년 말부터 당선 때까지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관해 언급한 말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윤곽을 더듬어 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대북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선 미국이 6자회담과 병행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시작하는 게 옳다"(2006년 10월 22일, NBC방송 인터뷰)

▲이란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을 벌주는 것이라고, 대화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는 (부기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11월 22일, 시카고지구문제위원회 주최 연설회)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벌을 줘서도 안 된다"(2007년 2월 10일, 대선출마 선언 직후 아이오와주 연설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4월 23일,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위원회' 주최 강연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첫번째 대처수단으로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이 선택돼야 한다"(6월 12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탄압을 받아서는 안되며 탈북자들은 국제법에 합당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7월,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에 보낸 지지 서한)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이들 국가를 벌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과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했다. 우리는 개선의 여지를 찾아낼 의무가 있다"(7월 23일, 유튜브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해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을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게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할 힘과 용기를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7월 28일, 아이오아주 유세)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장국가 클럽에 합류했고 이란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다. 미국이 비핵화를 주도해야 할 때다."(10월 2일, 시카고 유세)

▲"새 대통령은 적과 기꺼이 대화하려고 해야 하며 (분쟁과 기아 등으로) 곤란을 겪는 국가에 더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11월 28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정책포럼)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단합과 공동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2008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록)

▲"이라크전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고, 부시 행정부가 당초 공언과는 달리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나서기 전 핵실험까지 했다"(3월 19일, 노스캐롤라이나 파예트빌 연설)

▲"북한이 시리아의 핵무기 제작에 도움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런 활동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중지한 기간에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동맹국 뿐 아니라 적성국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다"(4월 27일, 북한-시리아 핵커넥션관련 논평)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 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은 없이 만날 것이다. 나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게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고 (그제야) 대화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6자회담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전을 이뤄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했다"(5월 17일, 사우스다코타 기자간담회)

▲"북한과 이란처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규정을 어긴 국가들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토록 하기 위해 NPT를 강화함으로써 핵확산을 강력히 저지하겠다"(6월 2일, 홈페이지 대선공약)

▲"(북핵 신고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다른 후속 조치들도 필요하다. 대북 제재의 해제는 북한의 향후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북핵 신고에 대한 중요한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미 의회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기 전 45일간 북한의 신고와 검증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6월 26일, 북한 핵신고관련 성명)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는 이를 신뢰해야 하지만 검증도 해야 한다"(7월 2일, 오하이오주 제인즈빌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우리(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와 때에 적절한 지도자와 만나겠다"(7월 15일, 워싱턴D.C. 연설)

▲"북한이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력하고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7월 16일, 인디애나 퍼듀대학 연설)

▲"탈북 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당한 권리침해다. 그들이 강제송환돼 처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들은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7월 18일,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에 보낸 지지 서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핵무기와 핵시스템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7월 24일, CBS방송 인터뷰)

▲"우리가 응징하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란과 북한에서도 그런 생각은 먹히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단절한 뒤 북한은 핵능력을 4배로 키우고 미사일을 시험발사까지 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를 시작했을 때 몇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대화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란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이들의 (핵개발)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다. 전제조건 없이 만난다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단계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대화 범위를 높여가는 것이다"(9월 26일, 미시시피대학 대선 TV토론회)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다.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복원하려던 노력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돌려놓으며,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북한의 핵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제를 이행하는 데 국제사회와 완전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다.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에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10월 12일, 미 국무부 발표 이후 성명)

〈오바마 진영 인사들〉

▲"오바마는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받아들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매우 소망한다"(존 홀룸 전 군축기구(ACDA) 국장 6월 16일, 미 군축협회 토론회)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8월 25일, 민주당 정강정책)

▲"오바마는 차베스 문제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다룰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은 매우 힘든 대화이겠지만 현명한 대화다."(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 9월 12일, CBS방송 인터뷰)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제재를 가하는 일은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돼야 한다. 오바마는 협상 테이블의 옵션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협상을 선택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 9월 22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 아시아관련 정책토론회)

▲"오바마는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게 핵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 제재 완화, 안보 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이고 원칙있고 단호한 자세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개입정책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바마는 믿고 있다.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제반 문제들이 북미 관계정상화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 인내심있는 외교가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북한이 우리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지시를 하고 재교섭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마이클 쉬퍼 민주당 고문, 10월 1일, 하와이동서센터 인터뷰)

▲"오바마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상을 포함해 모든 외교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양자 회담이 필

요하다고 본다"(프랭크 자누지 민주당 한반도정책팀장, 10월 2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한인동포들의 오바마 지지모임)

▲"오바마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변화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국가내 지도력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참여, 대화가 있어야 한다"(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10월 17일, 뉴욕 '2008한반도평화포럼')

▲"(북한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언급은) 오바마 후보가 내년 1월에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프랭크 자누지 민주당 한반도정책팀장, 10월 25일)

▲"북핵문제는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 10월 29일, 워싱턴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세미나)

zoo@yna.co.kr (끝)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1/05/0511000000AKR20081105155700014.HTML

[참고 2] 〈李대통령 오바마 당선인 축하서한 전문〉 (11/5)

(서울=연합뉴스) 미합중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 당선인의 역사적인 승리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올 지도자를 원하는 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선거라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본인도 백악관으로 향하는 당선인의 여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본인은 파트너십의 힘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본인은 귀 당선인께서 선거운동 기간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을 강조할 때 우리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관계야 말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세계가 분열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굳건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점에 있어서 귀 당선인께서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우리의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귀 당선인에게 우리의 전적인 협조를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귀 당선인과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만간 귀 당선인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끝)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1/05/0503000000AKR20081105186700001.HTML

국제관계연구실 제공